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복 받으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민족이나 나라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그 종류는 다를지 몰라도 크고 작은 복을 얻기를 원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찾는 복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복을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편은 1편 시작에서부터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2:1-2말씀에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은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부터 3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32:1-2 말씀에 따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 그리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지만 바로 하나님께 나아와 자복하고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 다시 말씀 드리면 나의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해결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기 위해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부정적인 모습 등을 가리려는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범죄 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 나아오면서도 내 자신을 포장합니다. 내 자신을 조금이라도 덜 죄인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의 있는 모

습 그대로가 아닌 가리고 숨기는 모습은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절에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를 하면서도 거짓으로 회개하고 나를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나쁜 사람으로 포장해 볼까 하는 것은 바로 간사함이 있는 마음이요 거짓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어 놓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것 같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죄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데 문제는 우리들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와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기억으로는 다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숨김 없이 나아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18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물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롬 4:7 이하의 말씀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운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로 갈리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죄 사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의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그게 복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사탄 마귀가 속이기 위해 보여준 것들을 쫓으며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갖기 위해 경쟁도 하고 전쟁도 하며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결국에 죽음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에는 '잘 못 살았다' '늦었다'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탄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지금 우리들을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라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31:5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도 부르짖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 때 영생을 얻어 영원히 안식을 누리는 사람과 영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정죄를 면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며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